

DMZ 평화지역 문화발전 자문위원회 창립회의 결과

I 행사개요

□ 회의개요

- 일 시 : 2019. 1. 17.(목) 10:30 ~ 12:30
- 장 소 : 강원도청 본관 소회의실(2층)
- 참 석 : 29명
 - 평화지역발전본부장, 평화지역문화과장, 평화지역 부단체장
 - 문화재단 사무처장, 민간 전문가, 위촉위원, 평화지역문화과 직원 등
- 주요내용
 - 자문위원회 창립 취지 및 경과보고
 - 2019년 평화지역 문화사업 보고
 - 평화지역 문화사업에 대한 자문 및 토론

□ 시간계획

시 간		주 요 내 용	비 고
10:30~10:33	3'	■ 개회 선언, 국민의례, 참석자 소개	문화기획담당
10:33~10:35	2'	■ 인사말씀	평화지역발전본부장
10:35~10:40	5'	■ 자문위원회 창립 취지 및 경과보고	평화지역문화과장
10:40~11:00	20'	■ 2019 평화지역 문화사업 보고	문화기획담당
11:00~12:20	80'	■ 평화지역 문화사업에 대한 자문 및 토론	"
12:20~12:30	10'	■ 기념촬영 및 폐회선언	"
12:30~		■ 오찬	

□ 프로그램 자문 및 토론

발언자	기관단체명	토의 및 의견
변정권 본부장	평화지역 발전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그간 평화지역은 각종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해 발전이 어려웠고, 국방개혁 등으로 지역경기는 더욱 침체됨. ○ 이에 도는 평화지역의 특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. 문화프로그램·경관·숙식 사업을 병행 중 ○ 올해는 평화지역별 약 20억 원을 투입, 지역별 특화 문화행사를 통해 관광 상품화 개발에 주력 ○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 요청
오제환 사무처장	강원문화재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든 행사의 성패는 사업의 디테일이라고 생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요자가 원하는 행사가 성공의 요인 - 지역주민과 군 장병이 함께하려면, 행사장 이외 주변 명소, 먹거리 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함. ○ 평화지역의 행사 홍보예산이 전무하여, 초기사업의 흥행 역부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별 홍보가 아닌 문화행사 전반적 홍보 필요 ○ e스포츠대회의 흥행은 방송중계와 게임채널의 확보가 중요. 도 및 지자체 SNS 요원 활용 대대적인 온라인 홍보 필요
최웅집 대표	(주)스텝서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방개혁에 따른 군 장병의 감소와 이탈은 필연으로 지역에 체류하기는 쉽지 않을 것임. ○ 사업대상이 군 장병 중심 되어있으나, 지역주민 또는 관광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내 스토리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면 장기적 플랜 구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

발언자	기관단체명	토의 및 의견
박용재 대표	스토리산업 연구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화지역 문화사업을 큰 틀에서 묶을 수 있는 “브랜드” 개발이 필요 ○ 각 지역의 지역명소 등을 상징적 공간으로 탄생 시키기 위한 스토리 발굴과 콘텐츠 개발에 노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내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- 화진포 금모도(광개토대왕 무덤)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사하여 미래 가치 발굴 ○ 각종 아리랑 행사는 이미 다수 지역에서 추진 중. 평화지역만의 특수성 및 차별화 필요 ○ 세계평화예술축제(아트페스타)는 동계올림픽 레거시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보스니아에서 개최되는 ‘사라예보 겨울 평화 축제(2월)’와 연계할 것을 추천
이재한 회장	강원도예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난장판 사업의 경우, 5개 군 내 예술단체가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일부 동아리 수준의 예술인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 ○ 문화예술의 위상의 문제 등으로 참여·공연 기획의 창구가 일원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○ 현재 2군단과 MOU를 통해 군 장병 문화 활동 지원에 노력할 계획으로 체결을 준비 중에 있으며, 향후 장병을 대상으로 전문가 지도가 필요 시 재능기부 의사 있음.
김흥우 회장	(사)강원민예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올림픽 개최 당시 비개최 시군의 소외감 만연, 평화지역 선언 이후 비접경지역의 소외감 역시 존재. 접경지역 이외의 지역도 아우르는 정책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를 들어 분단을 상징하는 동해안 지역의 철조망(철책)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사업 필요 ○ 평화 아리랑 세계 대축전은 기존 아리랑행사의 콘텐츠를 배제한 연변 및 북한아리랑 선점 필요

발언자	기관단체명	토의 및 의견
백형민 대표	백형민 브랜치 댄스 컴퍼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철원) 피스 트레인을 활용한 자유로운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로 확장 - (화천) 비문문화제 열리는 생명의 땅으로써 문학·미술을 접목한 아이템 발굴 - (양구) 편치볼이라는 자연 속 ‘에코 스테이지’에서 전통 클래식 음악을 활용한 사업 개발 - (인제) 뗏목아리랑을 활용한 아리랑 콘텐츠의 재가공을 통한 아리랑 합창 페스티벌, 학술대회 등으로 확장 - (고성) ‘평화의 길, 미래의 땅’ 콘텐츠가 필요. DMZ박물관과 통일전망대 자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와 저도어장의 가치를 재조명한 DMZ 체류형 상품 개발을 제안 ○ 현재 군 장병 사업을 단순 게임, 관람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동기부여가 가능한 내용으로 보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 내 문화제 개최 시, 그림 등 문예작품 출품 등
허 윤 부군수	철원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방개혁으로 군부대 이전, 병력 감소 등에 따라 지역 내 경기침체는 물론 지역공동화 현상 발생하는 등 어려움, 道 평화지역 사업 지원에 감사 ○ 작년부터 추진 중인 ‘피스 트레인’을 레거시로서 지속가능한 행사 운영 건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 및 공연의 장소 변경 - 사단법인 피스트레인 사무국을 법인으로 변경 중에 있음. 향후 법인의 출연금 지원으로 행사의 상업화를 방지하고 세계적 뮤직 페스티벌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
이성규 부군수	인제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화지역 스페셜 이벤트 등에서 인제군이 빠져 있어 다소 아쉬움. 타 지역과 연계를 위해 걷기 행사 등 군비 부담을 통해 참여가능 ○ 행사가 평화지역에서 고루 개최될 수 있도록 지역안배 요청

발언자	기관단체명	토의 및 의견
김왕규 부군수	양구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난해 평화지역 문화행사의 성과는 긍정적. 다만 홍보부족으로 지역주민의 관심이 저조했으나, 행사 주 타깃인 장병들의 호응은 매우 높았음. ○ 道の 사업추진 시,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줄 것을 건의
양원모 부군수	고성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작년 평화지역 문화행사를 통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의 폐쇄적인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인식전환의 계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공연 프로그램의 컨셉이 군 장병 위주로 지역주민의 이해도와 관심이 낮음 ○ 고성군은 국방부 위수지역 폐지와는 무관한 지역으로 일과 후 외출제도가 시행될 것을 대비하여 군심잡기를 위한 다양한 사업 구상 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히 경관·숙식사업이 병행되고 있어 시너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
변정권 본부장	평화지역 발전본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앞으로 2월 1일부터 주중 외출제도가 시행되면 매일 3,500여명의 장병이 외출을 나오게 됨. 道는 이들의 군심잡기에 주력할 예정이며, 평화지역 문화프로그램은 문화 진흥 및 창달의 목적이 아닌 군 장병들의 체류를 통해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 ○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과 제안은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내용에 반영

□ 회의사진



DMZ평화지역 문화발전 자문위원회 창립회의(2019.1.17.)



DMZ평화지역 문화발전 자문위원회 단체사진(2019.1.17.)

III

조치계획

- 자문위원별 제안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각 프로그램별 반영
- 종합적 홍보 진행을 위해 예산부서 및 대변인실과 협의
 - 프로그램별 홍보 지양, 평화지역 문화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홍보
- 장소선정이 필요한 사업은 조기에 관련 규격을 군에 전달, 신청 및 심사 진행
 - e스포츠대회, 평화 아리랑 대축전, DMZ World ART Festa 등
- 자문회의 결과 통보(위원 및 郡) : 1.25.한